

국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이 되겠습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To become Citizen-Friendly Transport ! - Faster, Safer and Better Transport



김용석

머리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의식주(衣食住)를 꼽는다. 그러나 사회발달에 따라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의 행동반경을 결정해주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편의성” 역시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의식주(衣食住)에 행(行)이라는 요소를 포함시켜 의식주행(衣食住行) 4대 요소가 인간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복·식사·주거·이동이라는 이 4가지 요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소이기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락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 요소 중 하나인 행(行)으로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교통은 불편(不便)하고 불만족(不滿足)스러우며 불안(不安)한 것이라 느낀다면 우리 국민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우리 교통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동시에, 교통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표 브랜드 정책 과제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 교통분야 브랜드 과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역점정책의 특징은

크게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및 창조경제 기반 구축”,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도출” 크게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정부에서는 금년 2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브랜드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통 분야의 경우 육상교통·철도·항공 및 도로교통을 망라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모아 2014년 교통분야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였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해 왔다. 즉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교통분야의 브랜드 과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최고의 역점사항들을 망라한 정책 집결체라 할 수 있다.

교통분야 브랜드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통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선진국수준의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이며, 둘째는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추진된 과제들이다. 이 글에서 이 두 분야에서 추진된 수많은 과제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과 과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1) 교통이 더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우선 올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지역별 교통카드 사업자가 달라 지역내 버스, 지하철에서만 이용되고, 타 지역에서는 호환 사용이 되지 않아 지역 간 이동시에는 교통카드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 6월 21일부터 수도권 중심을 하나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 전국호환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이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시외·고속버스에매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장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육상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자유로이 이용하고 환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14년 6월부터 지방에서 출발하는 KTX고속열차를 당초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부산·목포 등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승객이 환승 없이 곧바로 인천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KTX 기차가 인천공항철도를 지남에 따라 인천 검암역에도 정차하게 되어 전국 각 지역과 인천과의 연결수단이 확보되어 인천주민 및 인천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인천공항행 KTX이용객 수는 당초 1일 1,500여명 수준으로 예측하였으나 개통이후 실제로 1일 2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SOC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올해는 경의선 구간을 용산까지 추가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북서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연말에는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 구간의 공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의 도심혼잡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도로 역시 음성-충주 구간, 냉정-부산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작업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주차문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정부는 현재 약 92%인 주차장 보급률을 장기적으로 130%까지 제고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주차장 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구도심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국비를 50% 보조

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근린, 상업, 업무시설 등만 입주 가능토록 되어있는 주차빌딩에 주거시설의 입주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도로의 전광판이나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빈 주차장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주차의 문제점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주차문화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 교통이 더 저렴해 졌습니다.

우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던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00원 인하(13%)하고, 당초 매년 인상하는 것을 3년에 한 번만 인상하면서 인상률은 연 2.4%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총 1조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2만 원대의 저렴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100만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9월 이후 하이패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고속도로 혼잡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ℓ당 30원 추가로 인하·시행하기로 하여 자동차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하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교통 이용자가 권리가 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항공티켓 구매 시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항공티켓 구매 불만사항 중 상당부분은 항공사·여행사 등에서 저가요금인 것처럼 낮은 금액으로 구매

를 유도하고 실제 구매시 유류할증료·세금 등 부가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티켓 구매 첫단계에서부터 항공운임·요금·공항시설 사용료·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이용자가 지불해야하는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가 향상되었다. 우선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들쭉날쭉하던 인건비·부품가격 등과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 및 작업별로 소요되는 표준 정비시간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입자동차 업계를 포함하여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향후에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가 현재까지 자기차량의 연비 과장 문제 등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부·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자동차 차량의 연비를 조사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후조사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고시하여 보다 정확하게 차량의 연비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통약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도 더욱 확실해진다.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전문재활훈련기관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10월에 경기도 양평에 총 304개의 병상을 갖춘 국립 교통사고 재활병원을 국내 최초로 설립하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10개의 진료과목을 신설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보장사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는 보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교통사고보상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금년도에는 4,5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보장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책임보험의 의무보상한도도 현재 사망후유장애시 현재 한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부상시 상해등급 1급 기준을 현재 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의 경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보호가 더욱 확실해 진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저가항공사 및 외국계 항공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급작스런 스케줄 변경, 지연도착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 2월부터 이러한 피해 사실이 다수인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교통 안전의 획기적 개선

1) 교통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증가한 해였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철도 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였다. 졸음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올해만 25개를 추가하여 총 75개를 운영 중이며, 화물차 휴게소도 14곳을 증설하였다. 또한 위험도로정비 및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110개소를 완료하여 도로환경이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분야에서는 도로교통이용불편·위험사항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 중인데, 이는 이용자가 불편 또는 위험사항을 체감하고 이를 스마트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에 즉각 응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000여건의 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또한 향후 도로환경은 IT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첨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경부선 서울-수원 구간, 영동선, 서해안선을 스마트하이웨이의 시범사업 도로로 선정하고, 사고 등 도로의 응급상황 발생 시 후속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에 자동으로 이를 표출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하이웨

이가 본격화 될 경우 2차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는 물론 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가 가능해져서 도로의 신규증설 수요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발생 시 이용자가 1336으로 신고하면 휴게소·IC 등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견인서비스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이를 민자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철도시설 역시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고해졌다. 사고예방효과가 높은 스크린 도어 시설을 광역철도역사에 9개소를 확대하여 총 75개소에 스크린 도어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이를 '15년에도 3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교량의 내진 보강 및 노후 철도교량·터널 등 구축물 개량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에 따라 철도에 대한 안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고 문화로 체질화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안전이 개선된 획기적인 해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1970년대 현대에서 포니를 출시한 이래 집계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최초로 5,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3대 위험요소로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을 선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빗길에서의 브레이크 밀림 현상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다. 현재 경북 상주에 설치·운영 중인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는 연간 2만명 이상이 교육수료 중이며, 올 6월에는 경기도 화성에 제2 교통안전체험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 또한 항공분야에서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탑승 대기장에 항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구명품 사용법, 탑승절차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교통 분야에 있어 오래된 불합리한 관행이었던 고속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입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운행 버스에 입석으로 승차하는 것은 안전띠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여 사고 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였다. 국토교통부는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여러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교통카드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증차, 노선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7월부터 좌석제 시행을 시범 실시하였다. 추진과정에서 입석버스를 오랜 관행으로 여겼던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사항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교통안전 확보해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49인승 대용량버스 및 2층버스 투입, 버스차량 증차와 수도권 내 환승센터

추가설치 등 근본적인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맺은말

새 정부 출범 이후 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교통의 지향가치인 세계적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국토교통부 혼자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교통의 3요소인 교통시설이 확충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심하여 개선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개혁과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어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이 더욱 진일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교통이 국민들께도 언제나 사랑받는 주제로 회자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표 1. 교통분야 브랜드 과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체계도

